



보도시점 2023.11.23.(목요일) 배포 2023.11.23.(목요일)

재외동포청, 내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

한국시간 12월 8일 온라인 신청 마감

-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‘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’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.
 - 지원 대상 사업은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을 비롯해 재외동포 문화단체 활동, 차세대단체 활동, 경제단체 활동, 조사연구단체 활동, 언론단체 활동, 공공외교 활동, 코리아타운 활성화, 한글학교 교사현지 연수,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, 해외입양 동포지원, 전통문화용품 지원 등이다.
-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오는 12월 8일까지 코리안넷(www.korean.net)의 「온라인 지원신청 시스템」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재외동포청은 2024년 2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포단체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.
 -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재외동포단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동포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와 효율성 및 해당 단체의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, 지원금은 총 사업소요액의 50% 이내에서 지원한다.
 -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은 사업, 분규 중인 단체의 사업, 영리목적의 사업 또는 지원요청액이 미화 1천500달러 미만인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	책임자	서기관	문경남	032-585-3196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한울	032-585-3200